

청소년들의 창업체험활동 참여도 및 만족도, 기업가정신, 진로계획성 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 부모와의 대화빈도 및 능동적 학습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가록(순천대학교)**, 장유진(순천대학교)***, 이재은(순천대학교)****

< 목 차 >

I. 서 론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2-1. 선행연구 검토

2-2. 연구가설 설정

III. 연구방법

3-1. 자료의 수집 및 연구표본의 특성

3-2. 변수의 측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요 약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체험활동 만족도 및 참여도, 기업가정신, 진로계획성 간의 연관성을 부모와의 대화빈도 및 능동적 학습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획득한 중·고등학생 35,950명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창업체험활동 참여도와 만족도는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은 진로계획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와의 대화빈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학습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능동적 학습태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 본 연구는 순천대학교 교연비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순천대학교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cahgr1211@sccu.ac.kr

*** 순천대학교 무역학전공 박사과정, jean9532@sccu.ac.kr

**** 순천대학교 무역학전공 부교수, sky2u@sccu.ac.kr

• 논문투고일 :2021-04-08. • 수정일 :2021-05-10. • 게재확정일 : 2021-5-31.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체험활동의 참여도 및 만족도가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연구과 진로계획 연구 간 융합연구의 토대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모와의 대화빈도 및 능동적 학습태도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키워드 : 창업체험활동 참여도, 창업체험활동 만족도, 기업가정신, 진로계획성, 부모와의 대화빈도, 능동적 학습태도

I. 서 론

최근 들어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장경진, 이호진, 장원섭, 2020). 뿐만 아니라 실무적 측면에서도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YEEP(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 이나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등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창업체험 프로그램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백민정, 강경균, 윤은진, 2018).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업체험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규명하려는 학술적 시도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진로계획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이재은, 강지원, 김춘광, 2017; 정지애, 2020).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진로계획을 설정하는데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영향요인들은 진로체험교육(Hershey, Silverberg, & Haimson, 1999; 정지애, 2020), 자기효능감(김미란, 한수정, 2018; 박가열, 2008), 부모와의 상호작용(Blustein, Walbridge, Friedlander, & Palladino, 1991; 이선영, 송주연, 2019; 정주원, 2016)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청소년들이 지닌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중학교 이후부터 자유학기(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유학기(학년)제 동안 학생들이 다양한 실험활동과 진로교육을 체험할 수 있고(Kim, Kim, Lee & Joung, 2020),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계획 관련 교육들이 학생들

의 기업가정신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보고하고는 있지만(Han, 2019),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진로계획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은 분명 진로계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진로계획성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하고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로계획성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제시하는 부모와의 대화빈도 및 능동적 학습태도를 조절변수로 상정하고 이러한 조절변수가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조절효과를 지니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체험활동 참여도와 만족도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은 진로계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지니는가? 넷째, 능동적 학습태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조절효과를 지니는가?

II.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설정

1. 선행연구 검토

1.1 기업가정신

많은 학자들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다양하게 정의해 왔다. 예컨대 Drucker(1985)는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꾸준히 도전하며 변화를 기회로 여기는 정신이라고 정의하였으며, Stevenson(1983)은 기업가정신을 기업을 세우거나, 혁신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상당 수의 연구자들은 기업가정신을 크게 위험감수성(risk taking propensity),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Miller, 1983; Lumpkin, & Dess, 1996; 신정신, 이재은, 2018; 이재은 외, 2017; 최용석, 이재은, 강지원, 김선구, 한가록, 2016). 기업가정신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들은 주로 창업교육이나 창업체험활동 참여,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형성된다고 본다(김도현, 정선영, 이지선, 2018; 이재은,

2020; 한가록, 장유진, 이재은, 2021). 이처럼 기업가정신은 후천적으로도 습득이 가능하다(Drucker, 1985; 최용석 외, 2016). 특히 청소년들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비교적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오해섭, 2015), 많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기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박주현, 2014; 양현봉, 2019). 이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 기업가정신에 주목한 이유는 올바른 기업가정신 교육이 청소년들의 진로인식이나(노현철, 김경재, 2017) 창의적 역량 및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정선영, 김도현, 김래영, 2019)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YEEP’이나 ‘Biz-cool’ 등과 같은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백민정 외, 2018; 최용석 외, 2016). 이처럼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창업체험활동의 효과성을 규명하려는 학술적인 시도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암묵적으로는 창업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업체험활동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체험활동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상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1.2 진로계획성

청소년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계획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이재은 외, 2017),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대표적인 시기이다(Super, 1980; 최용석 외, 2016; 이선영, 송주연, 2019).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Ginzberg, 1984), 청소년이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간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정지애, 2020). 많은 선행연구들은 진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진로체험교육(Hershey et al., 1999; 정지애, 2020), 자기효능감(김미란, 한수정, 2018; 박가열, 2008), 부모와의 상호작용(Blustein et al., 1991; 이선영, 송주연, 2019; 정주원, 2016)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전적인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위험을 감수하려 하거나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Miller, 1983; Lumpkin, & Dess, 1996; 이재은,

강지원, 박정민, 2017).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기업가정신을 지닌 청소년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거나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로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특히 상당 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후천적인 교육으로도 기업가정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Pronstadt, 1985; Gibb, 2002, 이정란, 장규순, 2018),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진로교육의 한 측면으로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계획성을 연구한 상당 수의 연구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는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어운경, 2008; 김수리, 이재창, 2007). 또한, 청소년기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이나 미래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Blustein et al., 1991; 김정수, 정지연, 2012; 정주원,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관계에서 부모와의 대화빈도 및 능동적 학습태도를 주요한 조절변수로 고려한다.

2. 연구가설 설정

2.1 창업체험활동 참여도와 기업가정신

창업체험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창업체험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Arend, 2019). 예컨대, Arend(2019)는 청소년기에 창업체험 활동을 참여한 학생들은 창업체험 활동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는 다른 기업가적 성향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강조한 기업가적 성향은 창업체험 활동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는 ‘다르게 생각(think differently)’ 한다는 것인데, 보다 혁신적이며 기업가적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Arend, 2019). 때문에 Arend(2019)는 청소년기부터 창업체험 활동을 장기적으로 참여한 학생일수록 더욱 높은 기업가정신을 띠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선영 외(2019)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는데,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한 청소년일수록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한 창의성 역량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밝혀냈다(김도현 외, 2018). 또, 노현철, 김정재(2017)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여여부가 진로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

에 진로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이들 간 인과성을 규명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결국, 창업체험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정선영 외, 2019), 이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함양에 필요한 여러 지식이나 기회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다(김도현 외, 2018).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체험활동 참여도는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창업체험활동 만족도와 기업가정신

청소년들의 창업체험활동 참여도뿐만 아니라 창업체험활동 만족도 역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창업교육 만족도와 진로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 간 관계를 주로 규명해왔다(홍윤표, 양동우, 2018; 조은주, 서상혁, 2015). 예컨대 문경목, 양영석, 김명숙(2013)은 창업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진로인식 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또 다른 선행연구들 역시 창업체험활동의 한 유형인 비즈쿨 창업교육 만족도가 청소년들의 창업의지를 높인다는 점을 제시하였다(조은주, 서상혁, 2015; 홍윤표, 양동우, 2018). 한편 마케팅분야의 연구자인 Oliver(1980)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대불일치 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을 통해 만족도(satisfaction)의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만족도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전의 기대와 사용 후의 성과 사이에 발생하는 불일치가 긍정적인 경우 느끼게 되는 감정이며, 만족도는 결국 개인의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liver, 1980; Oliver, & Linda, 1981). 이러한 만족도의 개념을 창업체험활동의 맥락에 적용해보면 결국 프로그램 참여 전의 기대(expectation)와 참여 후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성과(performance)간 긍정적인 불일치가 발생되면(다시말해, 창업체험활동에 만족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려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의도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창업체험활동에 만족한 청소년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고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행동의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Oliver, 1980; Oliver, & Linda, 1981),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창업체험활동 만족도는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많은 선행연구들은 진로계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진로체험교육(박가열, 2008; 정지애, 2020), 자기효능감(김미란, 한수정, 2018; 나용주, 윤병섭, 2017), 부모와의 상호작용(이선영, 송주연, 2019; 정주원, 2016)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지닌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은 위험감수성, 혁신성, 진취성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때문에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진로계획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Grewe & Brahm(2020)은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향후 학생들의 경제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경제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들은 향후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Graevenitz, Harhoff, & Weber(2010)의 연구 또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 자신의 적성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진로가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고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경험과 활동임을 감안한다면(Arthur, Hall, & Lawrence, 1989),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보다 계획성있게 수행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을 지닌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면한 진로관련 의사결정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진취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으로 도전함으로써 진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Miller, 1983; Lumpkin & Dess, 1996; 이재은 외, 2017),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계획을 수립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기업가정신은 진로계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관계에서 부모와의 대화빈도의 조절효과

청소년들에게 부모는 조언자이자 조력자로서 청소년의 진로계획 및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Blustein et al., 1991; 김정수, 정지연, 2012; 정주원, 2016). 부모는 자녀들이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진로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지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Turner, Alliman-Brisett, Lapan, Udi, & Ergun,

2003), 진로계획에 있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 부모와의 활발한 대화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내재화할 수 있는 암묵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이선영, 송주연, 2009). 이선영, 송주연(2009)의 연구 또한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한 가치 탐색은 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그렇게 파악된 개인의 특성은 곧 목표한 진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가치관과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Song, Bong, Lee, & Kim, 2015). 정주원(2016) 또한 청소년의 진로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부모로부터 진로에 관한 정보를 받을수록, 진로에 관해 함께 고민할수록 진로에 관해 더욱 깊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주원, 2016). Domingo(2020) 또한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의 도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기업가의도의 결정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배경 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제시하였다. 저자는 사회적 배경지식과 사회적 경험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곧 향후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부모와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가치관과 사회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백연옥, 심혜숙, 2015).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4.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을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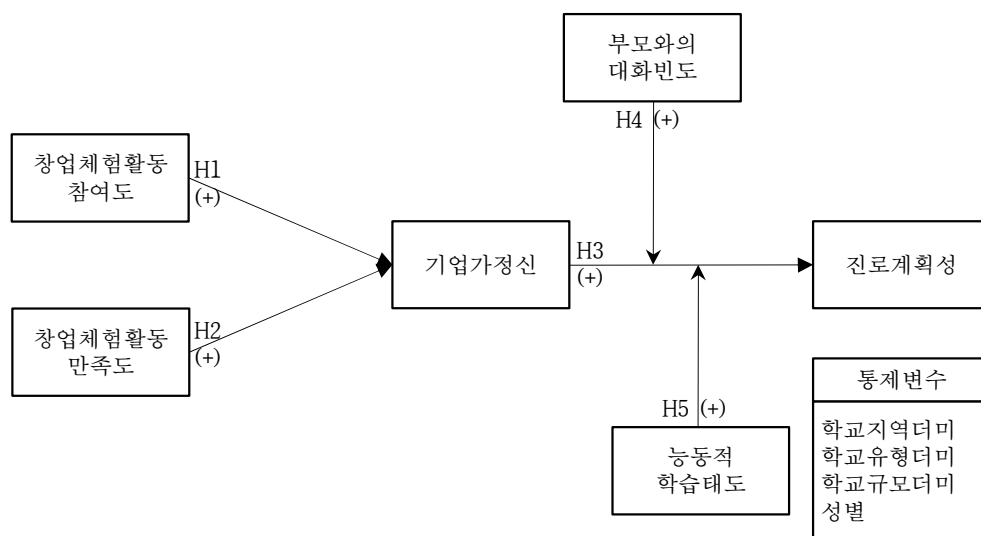
2.5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관계에서 능동적 학습태도의 조절효과

일군의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학습태도(attitude of learning)를 진로계획성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Bandura, 1986)으로 정의될 수 있다.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보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학습태도는 학습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세로 정의할 수 있는데(Hills, 1986; Kuhl, 1992), 학습태도는 학습과 관련하여 연습하거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의미한다(홍성훈, 김희수, 2010). 상당 수의 선행연구들은 학습자가 어떤 학습태도를 가지고 학습에 임하는지에 따라 학습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고 설명한다(Gottfred, 1985). 만약 학습자들이 수동적인 학습태도로 학습에 임한다면 지식습득이 저해되고 교육효과성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광오, 2014). 반면,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지닌 학습자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지닐 수 있고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Renninger, Hidi, & Krapp, 1992). 예컨대, Neneh(2020)는 남아프리카 대학생 274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한 결과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직업 선택에 있어 능동적 선택을 하려 하며, 기업가정신을 보유하고 있다면 격동적인 노동시장에서도 폭넓은 이해를 통해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Neneh, 2020). 결론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청소년들은 수동적 학습태도를 보유한 청소년들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Bandura, 1986; Gottfred, 1985),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다음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5. 능동적 학습태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을 정(+)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및 연구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체험활동 참여도와 만족도, 기업가정신 그리고 진로계획성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관계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태도와 부모와의 대화빈도를 조절변수로 상정하고 이들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한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도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총 35,950명의 설문자료가 연구표본으로 활용되었으며,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1> 연도별로 구분한 연구표본의 학교유형별 특성

(단위: 명)

년도	구분	학교유형				
		중 학교	고 등 학 교			
			고 교 소 계	일 반 고	특 성 화 고	특 수 목 적 고
2018년		9,122	9,546	7,052	1,643	851
2019년		8,917	8,365	6,041	1,485	839
소 계	18,039		13,093	3,128	1,690	
		17,911				
총 계		35,950				

먼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표본은 2018년의 경우 중학생 9,122명, 고등학생 9,546명, 2019년의 경우 중학생 8,717명, 고등학생 8,365명 등 총 35,9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에서는 전국을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연구표본의 성별, 학교유형별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표본의 52.5%인 18,863명이 남학생으로 나타났다.

*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도 자료였다. 초등학생들의 설문자료도 활용할 수 있었으나, 2016~2017년의 설문자료와 2018~2019년의 설문항목의 구성이 상이해 하나의 연구모형으로 분석하기 어려웠으며, 초등학생 대상의 설문지 역시 중·고등학생 대상의 설문지와 구성이 달라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2018~2019까지 2개년도의 중·고등학교 대상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으며, 47.5%인 17,087명이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학생의 경우 경기도(3,602명), 서울(1,999명), 경남(1,415명), 부산(1,098명) 등의 지역에서의 응답이 많았으며, 세종(264명), 제주(431명), 울산(567명) 등의 지역에서의 응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경우 경기(3,153명), 서울(2,136명), 경남(1,333명), 경북(1,287명), 부산(1,058명) 등의 지역에서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을 많이 했으며, 세종(314명), 제주(496명), 울산(595명) 등의 지역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응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으로 학교유형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전 지역에 걸쳐 동일하게 일반고의 응답 수가 가장 많았으며, 특수목적고의 응답 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지역별로 구분한 연구표본의 학교유형별 특성

(단위: 명)

시·도	구분		학교유형				
	성별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소계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2,044	2,091	1,999	2,136	1,538	381	217
부산	1,074	1,082	1,098	1,058	698	236	124
대구	810	816	818	808	623	114	71
인천	991	969	937	1,023	670	203	150
광주	683	700	663	720	557	96	67
대전	815	555	744	626	516	94	16
울산	600	562	567	595	435	90	70
세종	325	253	264	314	264	39	11
경기	3,385	3,370	3,602	3,153	2,491	426	236
강원	865	552	675	742	565	122	55
충북	852	741	724	869	533	208	128
충남	1,075	712	908	879	647	142	90
전북	1,018	875	1,017	876	646	165	65
전남	1,120	960	1,084	996	639	261	96
경북	1,259	1,121	1,093	1,287	874	294	119
경남	1,480	1,268	1,415	1,333	1,031	168	134
제주	467	460	431	496	366	89	41
소계	18,863	17,087	18,039	17,911	13,093	3,128	1,690
총계	35,950		35,950				

다음으로 <표 3>은 연구표본을 학교설립유형별, 학교규모별, 학교소재지별로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학교설립유형별 특성을 보면, 연구표본의 67.7%인 24,331명은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고, 32.3%인 11,619명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나타났다. 학교규모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의 49%인 17,624명이 대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35%인 12,581명의 학생들은 중규모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표본의 16%인 5,745명은 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대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응답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경우 중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응답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유일하게 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응답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으로 구분한 연구표본의 학교설립 유형별, 학교규모별, 학교소재지별 특성

(단위: 명)

시·도	구분	설립유형		학교규모			학교소재지			
		국·공립	사립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서울		2,196	1,939	2,700	1,435	0	4,135	0	0	0
부산		1,209	947	1,018	981	157	2,103	0	53	0
대구		896	730	1,142	367	117	1,472	0	154	0
인천		1,605	355	1,325	433	202	1,832	0	85	43
광주		694	689	815	439	129	1,383	0	0	0
대전		890	480	795	435	140	1,370	0	0	0
울산		1,021	141	554	550	58	932	0	230	0
세종		578	0	299	188	91	0	436	142	0
경기		5,309	1,446	4,172	1,961	622	0	5,287	1,447	21
강원		1,168	249	586	402	429	0	725	576	116
충북		1,264	329	640	707	246	0	898	695	0
충남		1,261	526	556	777	454	0	774	1,013	0
전북		1,010	883	524	657	712	0	1,056	836	1
전남		1,529	551	362	907	811	0	869	1,180	31
경북		1,204	1,176	722	1,001	657	0	1,337	1,036	7

시·도	구분	설립유형		학교규모			학교소재지			
		국·공립	사립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경남		1,777	971	963	1,024	761	0	1,543	1,205	0
제주		720	207	451	317	159	0	659	268	0
소계		24,331	11,619	17,624	12,581	5,745	13,227	13,584	8,920	219
총계		35,950		35,950			35,950			

2. 변수의 측정

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획득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계획성은 i) 자신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음, ii) 학교졸업 이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iii)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음, iv) 진로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음 등 총 4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2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

다음으로 창업체험활동 참여도는 i) 창업체험교육, ii) 교과수업 중 도전(기업가)정신 및 창업체험교육, iii) 도전(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1회성 강연, iv) 창업동아리활동, v) 창업경진대회, vi) 학교 밖 창업교육 프로그램(창업캠프) 등에 참여한 빈도로 측정하였으며, 창업활동 만족도는 그러한 6개의 창업체험활동들에 참여하여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리커트식 5점척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로 측정하였다.

기업가정신은 i) 살아가면서 도전정신은 꼭 필요함, ii) 나도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음, iii) 어려운 일이라도 도전정신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음, iv) 도전정신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배우고 싶음 등 총 4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학습태도 및 부모와의 대화빈도를 조절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먼저 능동적 학습태도는 i) 공부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움, ii) 공부하다

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알아냄, iii) 가장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생각하며 공부함, iv) 숙제나 해야 할 일은 어렵더라도 해결하려고 함, v) 공부한 것의 결과를 보고 학습방법이나 계획을 스스로 수정함 등 총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식 5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i)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 관계 등), ii) 자신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꿈), iii) 학교 및 학과선택, iv) 공부(학습)와 성적 등의 측면에서 부모님(보호자)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를 리커트식 5점척도(1=두달에 1회 이하, 5=거의 매일)로 측정하였다.

2.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변수들 외에 학교지역더미, 학교유형더미, 학교규모더미, 성별 등을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먼저 학교지역더미는 응답자의 학교가 특별시·광역시에 위치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유형더미는 응답자의 학교가 국·공립학교의 경우 1, 사립학교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학교규모더미의 경우 응답자의 학교가 대규모 학교의 경우 1, 중소규모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응답자가 남학생인 경우 1, 여학생의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IV. 연구결과

연구가설 검증에 앞서 먼저, 측정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 4>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KMO 측도값은 .956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사결과 그 값이 76325.767($p=.000$)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자료는 요인분석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측정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측정항목들의 요인적재치는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아이겐값들도 모두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Cronbach)의 알파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요인들의 크론바흐 알파값이 0.8이상으로 나타

나 측정변수의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변수들의 상관계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잠재적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VIF값과 CI값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VIF값의 최대치는 6.863(최소=1.000, 평균=1.622, 허용기준 10이하), CI값의 최대치는 11.636(최소=1.000, 평균=3.585, 허용기준 3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Chatterjee, Hadi, & Price, 2006; 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8).

<표 4>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결과

		요인적재값	공통성	아이겐값	분산의%	크론바흐 α
(1)	창업체험활동 만족도1	.719	.639	5.665	24.632	.982
	창업체험활동 만족도2	.894	.958			
	창업체험활동 만족도3	.894	.963			
	창업체험활동 만족도4	.884	.955			
	창업체험활동 만족도5	.882	.952			
	창업체험활동 만족도6	.888	.953			
(2)	능동적 학습태도1	.846	.876	4.686	20.373	.922
	능동적 학습태도2	.850	.903			
	능동적 학습태도3	.838	.894			
	능동적 학습태도4	.827	.882			
	능동적 학습태도5	.844	.902			
(3)	부모와의 대화빈도1	.847	.774	3.607	15.684	.871
	부모와의 대화빈도2	.920	.910			
	부모와의 대화빈도3	.909	.895			
	부모와의 대화빈도4	.876	.842			
(4)	기업가정신1	.807	.906	3.405	14.806	.900
	기업가정신2	.814	.929			
	기업가정신3	.807	.922			
	기업가정신4	.806	.921			
(5)	진로계획성1	.809	.937	3.342	14.532	.932
	진로계획성2	.814	.949			
	진로계획성3	.785	.925			
	진로계획성4	.790	.921			

Total explained variance=90.027, KMO=.95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76325.797, df=253, sig=.000

〈표 5〉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진로계획성	1									
② 학교지역더미	.061**	1								
③ 학교유형더미	-.023**	-.294**	1							
④ 학교규모더미	-.021**	.045**	.302**	1						
⑤ 성별	.050**	-.023**	.021**	-.022**	1					
⑥ 창업체험활동참여도	.223**	.026**	-.084**	-.113**	.117**	1				
⑦ 창업체험활동만족도	.442**	.055**	-.041**	-.066**	.122**	.244**	1			
⑧ 기업가정신	.484**	.031**	-.001	-.030**	.110**	.192**	.548**	1		
⑨ 능동적 학습태도	.594**	.053**	-.018**	-.007	.017**	.208**	.406**	.454**	1	
⑩ 부모와의 대화빈도	.380**	.056**	-.078**	.011*	.025**	.194**	.264**	.299**	.346**	1
평 균	3.801	0.553	0.498	0.490	0.525	1.812	3.868	4.057	3.642	3.527
표준편차	0.886	0.497	0.500	0.500	0.499	2.151	0.885	0.781	0.877	1.066
최 대	5.000	1.000	1.000	1.000	1.000	6.000	5.000	5.000	5.000	5.000
최 소	1.000	0.000	0.000	0.000	0.000	0.000	1.000	1.000	1.000	1.000
왜 도	-0.300	-0.213	0.007	0.039	-0.099	0.969	-0.365	-0.676	-0.273	-0.328
첨 도	-0.345	-1.955	-2.000	-1.999	-1.990	-5.16	-0.165	0.620	0.016	-0.649

(주) * $p < .05$, ** $p < .01$ (2-tailed).

〈표 6〉은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학습태도, 부모와의 대화빈도 등 2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때문에 Aiken and West(1991)이 제안하는 평균 센터링(mean-centering)을 적용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모델 1-1과 1-2는 기업가정신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통제변수만을 회귀분석에 포함시킨 모델 1-1을 보면 학교지역더미($p < .000$), 학교유형더미($p < .01$), 성별($p < .000$)은 모두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규모더미($p < .000$)는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2는 통제변수들과 함께 창업활동참여도 및 창업활동만족도를 분석모형에 포함시킨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6〉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기업가정신			진로계획성		
		모델 1-1	모델 1-2	모델 2-1	모델 2-2	모델 2-3	모델 2-4
통제 변수	학교지역더미	.041*** (7.397)	.021*** (3.540)	.064*** (11.553)	.026*** (6.265)	.026*** (6.226)	.026*** (6.220)
	학교유형더미	.020** (3.360)	.010† (1.657)	.002 (.348)	.010* (2.252)	.010* (2.367)	.010* (2.307)
	학교규모더미	-.036*** (-6.413)	.010† (1.647)	-.023*** (-4.189)	-.016*** (-3.888)	-.017*** (-3.921)	-.016*** (-3.877)
	성별	.110*** (21.027)	.049*** (8.434)	.050*** (9.591)	.012** (2.953)	.011** (2.776)	.011** (2.823)
독립 변수	창업체험활동 참여도		.021*** (3.578)				
	창업체험활동 만족도		.537*** (90.383)				
조절 변수	기업가정신				.238*** (52.285)	.182*** (14.621)	.240*** (51.885)
	능동적 학습태도				.429*** (93.255)	.428*** (92.889)	.429*** (92.813)
	부모와의 대화빈도				.159*** (36.941)	.160*** (37.007)	.159*** (36.862)
	기업가정신×부모와의 대화빈도					.060*** (4.824)	
조절 효과	기업가정신×능동적 학습태도						.009* (2.138)
R2		.015	.304	.007	.433	.434	.433
Adjusted R2		.014	.304	.007	.433	.434	.433
R2 Change			.289		.426	.427	.426
F		132.239***	1547.039***	62.303***	3927.610***	3441.696***	3437.572***

(주)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괄호 안은 t값임. †p<.1, * p<.05, ** p<.01, *** p<.001 (2-tailed).

분석결과 창업체험활동 참여도(p<.000)와 창업체험활동 만족도(p<.000)는 모두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설에서 예측한 바대로 창업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또 창업체험활동에 만족할수록 기업가정신이 함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모두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모델 2-1부터 모델 2-4까지는 진로계획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모델 2-1은 통제변수들만을 포함한 회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지역더미($p<.000$)와 성별($p<.000$)은 진로계획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규모더미($p<.000$)는 진로계획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2는 통제변수들과 함께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를 회귀분석에 포함시킨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p<.000$), 능동적 학습태도($p<.000$), 부모와의 대화빈도($p<.000$)는 모두 진로계획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능동적으로 학습하려는 태도를 지닐수록, 부모와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진로계획성도 높아진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진로계획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모델 2-3은 부모와의 대화빈도를 조절변수로 고려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과 부모와의 대화빈도의 상호작용항(기업가정신 $\times$ 부모와의 대화빈도)($p<.000$)은 진로계획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은 부모와 빈번하게 대화를 할수록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4 역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델 2-4는 능동적 학습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과 능동적 학습태도의 상호작용항(기업가정신 $\times$ 능동적 학습태도)($p<.05$)은 진로계획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이 능동적 학습태도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체험활동 참여도와 만족도는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창업체험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고, 창업체험활동에 만족할수록 관련 지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진로계획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문제해결 능력을 지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계획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와의 대화빈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진로계획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Domingo, 2020)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중요한 멘토가 되기 때문(Blustein et al., 1991)에 부모와 빈번하게 대화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Song et al., 2015). 마지막으로, 능동적 학습태도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능동적 학습태도를 지닌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Graevenitz et al., 2010; Grewe & Brahm, 2020).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있어 창업체험활동의 효과성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청소년 대상 창업체험활동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창업체험활동이 기업가정신의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실무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창업체험활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연관성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진로계획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는 전무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 간 연관성을 규명하였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연구와 진로계획 연구 간 융합연구의 토대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진로계획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부모와의 대화빈도 및 능동적 학습태도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과 학교차원의 여러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과 진로계획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학생 자체의 능동적인 학습태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부모-자녀간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한 부모와의 빈번한 대화 역시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본 연구의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역시 지니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체험활동의 참여도와 만족도만을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나 진로계획성의 정태적인 측면만을 분석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기업가정신이나 진로계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동태적인 성격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동태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도현, 정선영, 이지선(2018), “기업가 정신교육이 고등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N기업의 청소년 기업가 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사고개발학회」, 14(1), 141-166.
- 김미란, 한수정(2018), “고등학생의 개인적·사회적요인, 학교진로교육 경험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9), 399-405.
- 김수리, 이재창(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9(2), 393-407.
- 김정수, 정지연(201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 「미래청소년학회지」, 9(4), 31-50.
- 나용주, 윤병섭(2017),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영컨설팅연구」, 17(1), 135-150.
- 노현철, 김경재(2017),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간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 -창업영재캠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6(3), 51-70.
- 문경목, 양영석, 김명숙(2013), “창업교육(Bizcool) 만족도가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벤처창업연구」, 8(4), 9-23.
- 박가열(2008), “초·중기 청소년 직업체험학습이 진로계획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15-130.
- 박광오(2014), “대학의 창업교육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3(5), 233-247.
- 박주현(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의 국내외 동향 연구” 「시민청소년학연구」, 5(1), 36-69.
- 백민정, 강경균, 윤은진(2018), “창업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2), 532-540.
- 백연옥, 심혜숙(2015),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진로장벽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5(1), 59-74.
- 신정신, 이재은(2018), “대학교 창업동아리원의 기업가정신이 동아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 구성원 다양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3(5), 41-54.
- 양현봉(2019),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금융연구」, 39(3), 57-77.

- 어윤경(200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한국진로교육학회」, 21(4), 23-41.
- 오해섭(2015),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개인역량 강화와 정책적 지원방안” 「청소년시설환경」, 13(3), 15-27.
- 이선영, 송주연(2019), “청소년의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자기이해, 진로계획성의 구조적 관계: 종단적 변화 검증” 「교육문화연구」, 25(4), 27-50.
- 이재은(2018), “창업동아리의 조직적 특성이 창업동아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창업동아리 내 갈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6), 47-73.
- 이재은(2020),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전공다양성이 창업동아리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34(1), 173-198.
- 이재은, 강지원, 김춘광(2017),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2(2), 193-214.
- 이재은, 강지원, 박정민(2017),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원세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31(1), 113-141.
- 이정란, 장규순(2018), “대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3(1), 43-60.
- 장경진, 이호진, 장원섭(2020), “창업체험교육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의 함께 배우는 경험과 과정에 대한 탐색: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YEEP)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1), 525-544.
- 정선영, 김도현, 김래영(2019),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창의성 역량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31(3), 435-454.
- 정주원(2016),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유형과 부모지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8(4), 139-158.
- 정지애(2020),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1(3), 683-696.
- 조은주, 서상혁(2015), “AMOS 모델을 이용한 창업교육의 만족도 및 성과 요인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599-609.
- 최용석, 이재은, 강지원, 김선구, 한가록(2016), “청소년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1(5), 15-27.
- 한가록, 장유진, 이재은(2021), “창업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6(1), 49-74.

청소년들의 창업체험활동 참여도 및 만족도, 기업가정신, 진로계획성 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

홍성훈, 김희수(2010), “명상음악 프로그램을 적용한 교양교과 수업활동이 대학생들의 주의집중력과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41(1), 27-44.

홍윤표, 양동우(2018), “특성화 고교생들의 비즈쿨 (Bizcool: 창업) 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심리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21(3), 39-56.

(2) 국외문헌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Arthur, M. B., Hall, D. T., & Lawrence, B. S. (1989), “Handbook of Career Theor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Arend, R. J. (2019), “Entrepreneurial Entrepreneurship Youth Education: Initiating Grounded Theory,” Entrepreneurship Education, 2(1), 71-89.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Boldureanu, G., Ionescu, A. M., Bercu, A. M., Bedrule-Grigoruță, M. V., & Boldureanu, D. (2020),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rough Successful Entrepreneurial Model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ustainability, 12(3), 1267-1300.

Blustein, D. L., Walbrige, M. M., Friedlander, M. L., Palladino, D. E. (1991), “Contribution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39-50.

Chatterjee, S., Hadi, A. S., & Price, B. (2006), “Regression Analysis by Example,” Hoboken, NJ: Wiley-Interscience.

Domingo, E. M. (2020), “Factors Influenc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o Become Social Entrepreneurs,” DLSU Research Congress.

Drucker, P. (198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California, NY: Harper and Row.

Gibb, A. (2002), “In Pursuit of A New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 4(3), 233-269.

- Ginzberg, E. (1984), "Career development,"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172-190.
- Gorman, G., Hanlon, D., & King, W., (1997), "Some Research Perspective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erpris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mall Business Management: a Ten-Year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15(3), 56-77
- Gottfried, A. E. (1985),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6), 631-645.
- Graevenitz, G. V., Harhoff, D., & Weber, R. (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1), 90-112.
- Grewe, U., & Brahm, T. (2020),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s in Mini-companies at Schools," *Education+ Training*, 62(7/8), 917-931.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8), "Multiparti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n, Y. (2019).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areer Planning,"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311, 276-279.
- Hershey, A. M., Silverberg, M. K., & Haimson(1999), "Expanding Options Implementation," *Mathematica Policy Research*, Washington, D. C.: Planning and Evaluation Service.
- Hills, P. J. (1986), "Teaching, Learning, and Communication," Croom Helm Ltd, London.
- Kim, G., Kim, D., Lee, W. J., & Joung, S. (2020).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Two Large-Scale Experimental Studies," *SAGE Open*, 10(3), 1-21.
- Kuhl, J. (1992), "A Theory of Self-Regulation: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Self-Determination, and Some Application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1(2), 97-129.
- Lumpkin, G. T., & Dess, G. G.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Neneh, B. N. (2020), "Entrepreneurial Pass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1-17.
- Oliver, R. L. (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 Oliver, R. L., & Linda, G. (1981), "Effect of Satisfaction and Its Antecedents on Consumer Preference and Inten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8, 88-93.
- Renninger, K. A., Hidi, S., & Krapp, A. (1992), "The Role of in Learning Develop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ronstadt, R. (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Song, J., Bong, M., Lee, K., & Kim, S. I. (2015),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to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7(3), 821-841.
- Stevenson, H. H. (1983), "A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 Turner, S. L., Alliman-Brisett, A., Lapan, R. T., Udipi, S. J., & Ergun, D. (2003),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6(2), 83-94.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Youth'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in Entrepreneurship Experience, Entrepreneurship, and Career Planning: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versation Frequency with Parents and Active Learning Attitud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entrepreneurship experiences, entrepreneurship, and career planning for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ctive learning attitude and conversation frequency with paren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data of 35,95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quired in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youth's participation in entrepreneurship experience and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ship.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entrepreneurial spirit of youth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areer planning.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active learning attitude, it was found that active learning attitude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planning in a positive (+) direction. Finally,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nversation frequency with the parents, it was found that the conversation frequency with the parents regul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planning in a positive (+) direction. This study can present meaningful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has been identified that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in entrepreneurship experience can be an important preceding factor in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Since this study has

청소년들의 창업체험활동 참여도 및 만족도, 기업가정신, 진로계획성 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

empiricall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planning, it can provide meaningful theore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can provide the basis and primitive for convergence research between entrepreneurship research and career planning research. Finally, in this study,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can be presented in that the positiv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career planning can be reinforced by active learning attitudes and the frequency of conversations with parents.

Keywords : Participation in founding experience activities, Satisfaction with founding experience activities, Entrepreneurship, Career planning, Active learning attitude, Conversation frequency with parents